

파페포포 메모리즈

심승현 글 · 그림 | 홍익출판사 |
216쪽 | 값 7,500원 |
순수한 청년 파페와 착하고 여린 '포포'
가 가슴 훈훈한 사랑얘기를 들려준다. 젊은
날의 사랑과 추억을 반추하며 따뜻함을 전
하는 파페와 포포는 사람과 사람이 상품화
된 시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. 착한 애인
같은 다정다감한 캐릭터, 에세이적 감상과
철학적 사유가 돋보이는 책은 출간 2년이
지난 지금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독차지
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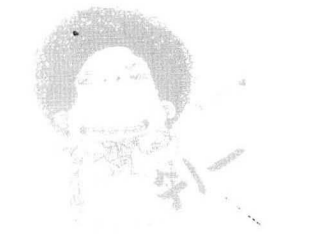


야야툰

홍승우 글 · 그림 | 문학과지성사 |
164쪽 | 값 8,500원 |
가족만화 《비빔툰》으로 사랑받은 작가 홍승
우가 난데없이 《야야툰》을 내밀었다. '야한
밤의 이야기'라는 뜻으로 짐작되는 제목만
큼 이 책은 무척 야하다. 부부간에 일어날
수 있는 성생활 에피소드, 연애시절 머릿속
을 가득 채운 성적 판타지, 중학생 '정보통'
이 성에 눈뜨기까지의 과정 등 우리 만화가
담아내지 못한 성의 영역을 유쾌하게 까
발린다.

곰씨와 오리군

한도그 글 · 그림 | 해냄 | 178쪽 |
값 7,500원 |
《곰씨와 오리군》은 눈물겹다. 일단은 너무
재미있어서 눈물겹고, 백수를 위한 애정을
잃지 않고 파이팅 해보자는 작가의 본심 때
문에 또 눈물겹다. 아기자기한 그림 속에
인생을 모두 아는 듯, 사랑을 모두 아는 듯
흐느끼는 에세이만화와는 격을 달리한다.
'오륙도'와 '시오정', '삼팔선'과 '이태백'
이란 신조어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 곰
씨와 오리군은 아주 괜찮은 친구가 되어줄
것이다.



빨라라 대행진

현태준 글 · 그림 | 안그라픽스 |
280쪽 | 값 9,500원 |
자신을 '장난감 연구가'라고 소개하며 날
마다 재미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
구하는 만화가 현태준의 별난 그림책이다.
"삶이란 무엇이고 허니"하며 좌충우돌하는
캐릭터의 모습은 유별하지만, 그 속에 담긴
성찰만은 목격하다. "모든 사람들 속에 숨
어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남
들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닌, 자기 자신으로
서 즐겁게 살아가자"는 메시지를 담았다고
현태준은 말한다.

마린블루스

정철연 글 · 그림 | 학산문화사 |
216쪽 | 값 8,500원 |
톡톡 튀는 해산물 캐릭터를 만나는 즐거움,
굴치 아픈 일상을 간단히 처치하는 캐릭터
들의 단순 무식함에 끌리지 않을 수 없다.
《마린블루스》는 1979년생 젊은이의 인터
넷 연재 일기가 큰 인기를 얻어 책으로 출판
되었다. 성계군, 불가사리군 등은 소박하면
서도 착한 주인공들. 벌이 쏟아질 것 같은
눈망울의 선인장 양이나 이등신 캐릭터에
서 극화체로 돌변하는 불가사리군을 보다
보면 웃음이 절로 터진다.

순정만화

강도영 글 · 그림 | 문학세계사 |
404쪽 | 값 12,000원 |
여고생과 열두 살 연상의 직장인 커플, 노점
상상인과 봉어빵 정수 등 흔하지 않은 커플
이 만들어내는 풋풋하고 따뜻한 사랑이 돋
보인다.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어려워 머뭇
거리거나 남자, 남자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저
수줍어 금세 얼굴이 발개진 여자, 제목 그대로
순정만화다. 미디어 다음에 연재되어 총
페이지부 3,200만, 1일 평균 페이지부
200만, 리플수 25만 개 등 인터넷 만화의
모든 기록을 갈아 치우며 폭발적인 사랑을
받았다.

몽치의 38가지 행복비결

앨런 코헨 지음 | 임왕준 옮김 |
허영희 그림 | 샘터 | 168쪽 |
값 8,000원 |
잭 캔필드와 함께 '달고기 수프' 시리즈로
유명한 앨런 코헨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
'몽치'를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 들려준다.
어느 날 자기가 키우는 개만큼만 행복해도
원이 없겠다는 한 사내를 만나면서 자신의
강아지 몽치를 떠올린 저자는, 몽치의 행동
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38가지의 행복의 비
결을 담아낸다. 허영희 씨가 좌충우돌 나쁜
의 행복을 찾아가는 몽치를 그려 책의 재미
를 더했다.

